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106 식품검열대 훈련
카투사 어머니 초청 강연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미디

4,5면 부대 탐방

37포병연대 6대대



6면 자유 공간

전역/등산소감문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빈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이취임식



카투사 신문 장승모

4월 4일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연병장 나이트필드에서는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이취임식이 있었다. 28사단장, 3군단장, 교육사령관, 육군참모차장을 지낸 신일순 대장이 남재준 대장을 이어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남재준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직된다. 사진은 이취임식 중 국가연주 순서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남재준 대장, 한미연합군 사령관 Leon J. LaPorte 대장, 신일순 대장(왼쪽부터)

카투사 NCO를 위한 새로운 상 제정



제공사진

백선엽 대장

Audie Murphy Club의 일원이 되는 것과 동일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드물게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다.

19전지사 사령관인 Jeanette Edmunds 소장은 뛰어난 카투사들은 어떤 상을 받는지를 이 간단한 물음은 많은 생각을 거쳐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미8군 사령관 Charles Campbell 중장은 3월에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본따는 것의 허

락을 구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대한민국육군 최초의 4성장군이다. 6.25 발발 당시 보병 1사단을 지휘하는 29세의 대령이었던 그는 국군, UN군의 후퇴작전 개시 전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을 3일간 막아 내었고, 대구 북부 다부동에서 북한군 3개 사단을 궤멸시킨 다부동 전투를 이끌었으며 인천상륙작전 후에는 적의 포위를 뚫고 평양탈환작전에 참가하여 승리하였다. 이후에는 2군단장으로 수도고지, 지형능선 전투에, 1군단장으로 설악산 부근 전투, 월비산 전투에 참가하는 등 전공을 세웠다. 그는 가장 큰 영예인 태극무공훈장을 2번 수상한 경력이 있고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지냈으며 참모총장 재임시에는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신형무기 도입, 제 1군사령부와 5군단사령부, 10개 사단을 창설하는 등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퇴역 후에는 대사로서 19개국에서 활동하였다.

를 구했다.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를 수상하기 위해서는 5명의 부사관들에 의해 치러지는 백선엽 대장 일대기, 통솔력, 응급 처치, 화생방 훈련, 병력의 조련, 기본 기술, 6.25 전쟁, 그리고 안전 대책에 대한 엄격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상자는 훈장과 카투사 중 최고의 NCO로 인정한다는 증명서를 받게 된다.

최초의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 시험은 4월 23일 대구의 캠프 헨리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시상식은 5월 초로 일정이 잡혀 있다.

최초의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 시험은 4월 23일 대구의 캠프 헨리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시상식은 5월 초로 일정이 잡혀 있다.

상병 강병삼

106 식품검열대 야전훈련 실시

106 식품검열대(106th Medical Detachment)는 4월 둘째 주 평택 캠프 험프리 근처의 훈련장에서 야전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크게 식품위생검열과 야전수술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등 NBC 훈련과 기초적인 CTT 연습도 병행하였다.

106식검은 각 소대가 서울, 오산, 의정부 등 여러 군데에 퍼져 있고 2소대의 경우는 미 본토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위해 부대 전체가 평택에 모였다. 식품의 위생 검열은 전시에 MRE를 포함한 식량이 먹어도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야전 식품 실험실(Food LAB)을 운영하여 음식의 박테리아 양을 검사하거나 오염된 식량의 처리 등을 연습하는 것이다. 야전수술은 이 부대가 담당하는 임무중 하나인 군견 관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시 군견이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이를 치료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다. 화생방 공격을 받을 경우 군견의 제독 또한 연습한다. 또한 실전상황에서 민간인

과 조우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습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이다.

이번에 미 본토에서 훈련을 위해 온 2소대장 Chad D. Foster 대위는 "1년에 몇 번 없는 좋은 야전훈련 기회이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라고 말했다.

106식검 부사령관 Ken Despain 소령은 "젊은 병사들, 특히 한국에 익숙치 못한 병사들에게 많은 경험이 될 것이다"며 "매일 훈련 내용을 되돌아봄으로써 전투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1소대의 최지웅 병장은 "많은 전쟁 역사가 증명하듯 안전한 식량의 확보는 전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부대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4소대의 노강현 일병은 "텐트를 치고 위장포를 덮는 등 훈련 준비에 많은 노력이 들었다"며 "평소에는 파견근무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같은 부대 선임병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상병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106식검 1소대 최지웅 병장(왼쪽)과 4소대의 노강현 일병(가운데)이 개 모형을 이용하여 야전 군견관리실습을 하고 있다.

1 통신여단 , 어머니 초청강연



카투사 신문 강병삼

한혜주 씨의 강연모습

서울 용산의 1통신여단(1통신여단 본부중대, 41통신대대, AFN, 251통신파견대)는 2일 정훈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한 병사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통신여단 본부중대 박준영 이병의 어머니인 한혜주씨가 강연의 주

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강연에 참석한 41통신대대 본부중대의 윤성한 일병은 "인상깊은 강연이었으며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AFN의 윤주노 일병은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전방에 있는 병사들보다는 외박이 잦아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감도 있는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훈련병때와 같은 느낌을 받고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상병 강병삼

인공으로, 전직 교사의 경험을 살려 흔쾌히 강연 제안을 수락했다고 한다.

1통신여단 지원대장 정성운 대위는 강연에 앞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어머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자식된 도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혜주씨는 한시간 가량 소요된 강연에서 아들을 키운 경험과 군인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의 심경을 이야기하였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부모도 부모 이전에 한 인간인데 이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단지 아들이 기보다는 부모에게 친구가 되어 함께 힘든 것을 나눴으면 한다"는 그는 "아들들은 특히 딸들보다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더욱 달는 경향이 있는 듯 한데 바쁘겠지만 부모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부모들은 자식들의 관심에 힘이 나기 때문"이다. 한혜주씨는 "군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여유를 가지고 앞길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조언도 했다.

한국군지원단 용산지역대장 이재울 중령은 강연 후 "이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했던 생활을 버리고 군대에 있는 26개월동안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한 홀로서기 연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께 더욱 많은 관심

미군과 카투사, 지역 사회를 위한 나무 심기



카투사 신문 강병삼

지난 4월 5일 성남 시청 앞 탄천변에서 17 항공여단과 164 항공대대 소속의 미군과 카투사 53 명이 성남 시민 500 여명과 함께 식목일을 맞아 '푸른 성남시 만들기'라는 취지로 식수 행사에 참여하였다.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식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간 미군 인쇄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펠
한국군지원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원단 경훈과장
대위(진) 이세희
편집장
상병 김대동
기자
병장 이만석
상병 강병삼
일병 장승모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MAJ Lee M. Packnett
Editor
CPL Kim, Dae Dong
Staff Writers
SGT Lee, Man Suk
CPL Kang, Byung Sam
PFC Jang, Seung Mo
Special Assistant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j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이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무기체계

- Bradley

브래들리 장갑차는 1981년 부터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탑승자 전원을 위한 야간 열감지장치, 야간투시경을 장비하고 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M2A1/M2A2, M2A3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력과 기타 전자장비가 증강된 것들이다. 또한 M2의 기본형에 장착되어 있는 레이저 시스템은 전자광학 시스템으로 적을 탐지하는데 쓰인다.

Bradley 장갑차에는 M2 보병용 장갑



실전에 사용되고 있는 Bradley AFV의 모습

차와 M3 장갑차등의 두가지 모델이 있으며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다.

Bradley M2 보병용 장갑차의 임무는 적의 탱크나 장갑차로부터 보병을 보호하고 보병을 수송하는 것이다. M2는 3명의 승무원과 6명의 완전 무장한 보병을 태울 수 있다. 한편 M3 CFV(Cavalry Fighting Vehicle)는 3명의 승무원과 2명의 정찰병을 태울 수 있다.

【몸체】

M2 IFV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의 장갑이 씌워져 있고 M2A2/M3A2 Bradley는 강철 장갑판이 몸체에 덧대어져 있어 탄도 무기로 부터의 장갑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다.

【조종수】

조종석은 장갑차 왼쪽 앞에 위치하며 조종사는 3개의 전방감시용 잠망경과 왼쪽에 한개의 잠망경을 갖추고 있다.

【포수】

포수는 포탑의 왼쪽에 앉으며 4배율 과 12배율

의 주간및 열관측 망원경이 추가된 통합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광학 중계장치는 포수가 보고 있는 장면을 지휘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전방과 측방 감시를 위한 잠망경을 갖추고 있다.

【포】

주무장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M242 25 mm Bushmaster 기관포이다. 이 기관포는 단일 총열에 두개의 실탄 공급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포수는 단발 혹은 연발 사격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 발사 속도는 분당 200 발이지만 분당 500 발 까지 사격이 가능하다. 탄환은 0erlikon과 US M790 시리즈의 25 mm 를 사용한다. M240C 기관포는 Bushmaster 기관포의 우측에 통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7.62 mm 탄환을 사용한다.

【TOW 미사일】

M2 Bradley 장갑차는 Raytheon Missile System 사의 TOW BGM-71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두개의 발사 장치는 포탑의 왼쪽에 위치한다. 미사



제공사진

작전 수행 중 Bradley AFV M2에서 나오는 병사들

일의 사각은 - 20 도에서 + 30 도 까지이며 미사일의 주 날개와 꼬리 날개는 발사때까지는 안쪽에 접혀져 있다.

Tow 미사일은 고폭탄이 장착되어 있으며 2 단계의 고체 추진연료를 사용한다. 목표는 광학 탐지경에 의해 추적되며 포수는 미사일의 진행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광학 추적장치가 작동하여 미사일 뒤쪽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한다. 미사일은 2중 통제 장치가 되어 있어 포수의 통제능력을 향상 시켜주고 있다. TOW의 사정거리는 3.75 km 이고 속도는 306 km/초(마하 0.92)이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훈련을 마치고...



6-37 포병대대 B포대 일병 구성희

일하는 부서의 특성상, 한국군과의 협력훈련, 실사격 훈련, 가상전쟁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를 키워줄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훈련이 남아 있고, 매 훈련이 임박함에 따라서 다시금 잊혀진 긴장감과 설레임에 젖어들겠지만,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듯, 겪어본 훈련과 군생활에 대해 큰 보람과 익숙한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6-37 포병대대 본부포대 상병 황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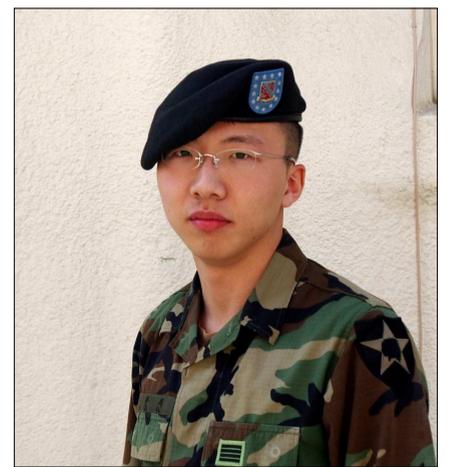
훈련장에서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담배를 한대 피우면서 훈련장 근처의 산이나 계곡등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잠시나마 훈련 속의 짜증을 잊게 된다.

훈련을 나가서 보람이 있었던 적은 한국군이나 민간인들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하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6-37 포병대대 C포대 상병 이호

훈련이 끝나고 장비를 바닥에 내려 놓으며, 가벼워진 어깨만큼이나 훌거운 해진 마음을 한껏 만끽한다. 어느덧 지나간 시간에 줄어든 군생활을 느끼며, 조금 성장한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된다. 늘어가는 계급장 만큼, 무언가 달라졌을, 아니 달라져야할 자신의 모습을 가능해 보며, 또 하나의 훈련은 그렇게 지나간다.



6-37 포병대대 본부포대 병장 한준희

눈치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부대에선 인사과 계원도 훈련을 나간다. 섹션에서 영어를 할 기회가 없는 인사과 계원에게 훈련은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할 때 한국군들이 미군을 보고 신기해서 말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훈련이라도 몇 차례 나가게 되면, 서로 알게 되는 미군친구가 생기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훈련을 나가는 우리 부대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37 포병연대 6 대대

6th Battalion, 37th Field Artillery Regiment

카투사 신문에 포병부대가 실리는 것이 약 2년만이다. '포병부대'라고 해서 기자는 포신이 길고 축 뽀은, 마치 전자처럼 생긴 자주포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나 막상 6/37포병대대가 있는 캠프 스탠리에 도착하니 그러한 차량은 없고, 대신 등에 원가를 짊어진 트럭같이 생긴 궤도차량들이 도열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중에 포신을 올린 모습을 보고서야 그것의 정체가 그들의 주무기인, 다연장로켓발사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37 포병대대의 역사는 워싱턴의 캠프 루이스에서 37 포병연대가 생긴 1918년 7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에 해체되었던 부대는 1940년 105mm 견인 곡사포를 주무기로 하여 재결성되었고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전후 다시 워싱턴에 머물던 6/37포병대대는 6.25전쟁시 26보병사단과 함께 1950년 8월 4일 부산에 상륙해 4년동안 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던 6/37포병대대는 1965년에 2보병사단과 함께 155mm 와 8인치포로 무장하고 돌아왔다. 1977년에는 8인치 M110A1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1984년부터는 다연장로켓포(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를 도입하기 시작해 1991년에는 모든 포대 전체가 순수한 다연장로켓 부대가 되었다. 1992년에는 다연장 로켓포에서 발사 가능한 에이태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 장거리 전술 유도 미사일을 도입하였다. 현재 6/37포병대대는 미 육군에서 가장 많은 다연장로켓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력을 지닌 육상 전력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대대원들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다연장로켓포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종합운동장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대대는 다연장로켓포를 지닌 A, B, C 포대(Battery)와 본부포대(Hqs)를 합쳐 총 4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다. 카투사들의 수는 약 55명이다. 본부포대의 경우는 화학, 의무, 보급, 공구수리, 행정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 소대의 카투사들은 주로 로켓포사지병(FDC), 탄약관리병

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다. 로켓포사지병은 M-577이라는 야전사격지휘차량에서 대대에서 사격 정보, 목표물에 대한 자료를 받아 로켓포 차량에 전달하여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이고 탄약관리병은 여분의 미사일을 실은 HEMMIT 차량을 이용해 이를 발사대에 공급, 재장전하는 것이다. 또 현재 로켓포 차량을 운전하는 조종수나 에서 직접 로켓을 발사하는 사수 자리에는 현재 카투사 인원이 없으나 앞으로는 카투사도 이 보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C포대의 이호 상병은 6/37포병대대에서 일하는 포병 업무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대의 포병들은 직접 목표물에 대한 좌표 계산을 하거나 무거운 포탄을 장전하지는 않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목표물의 좌표 계산을 해주고 장전 역시 로켓이 들어 있는 차량과 발사 차량을 연결, 자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단 기계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고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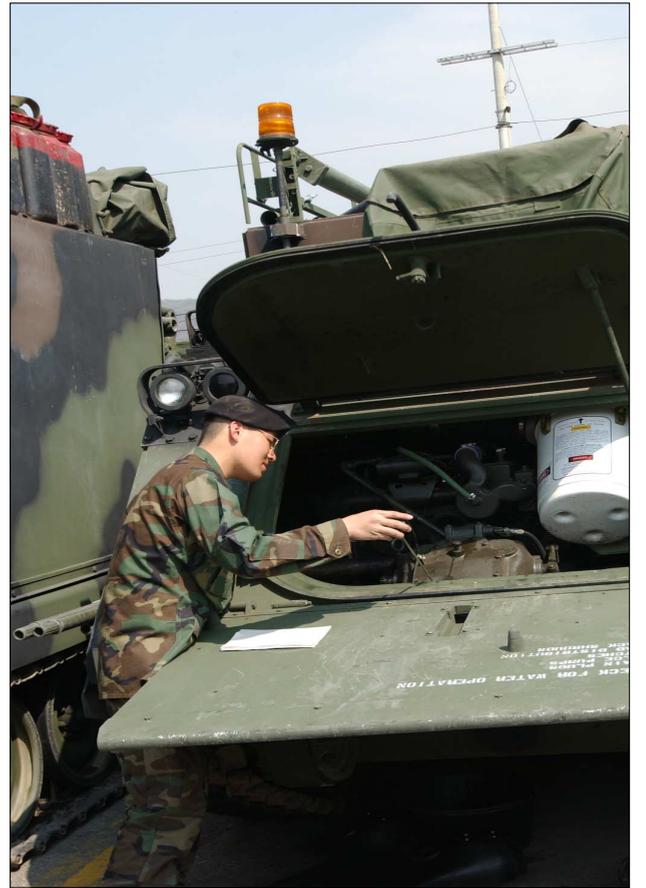
그에 의하면 6/37대대는 훈련시 인적이 드문 밤에 나가서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평소에 장비의 유지, 보수가 철저하며 안전장구를 항상 갖추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기준이 높아 자잘한 고장을 제외하면 사고가 없는 것이 역시 특징 중 하나라고 한다.

6/37포병대대는 포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달에도 여러 번 전역축하파티, 전입 환영회를 갖는 등 잦은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카투사들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미군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자가 초청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그들은 또 캠프 스탠리의 크기도 적절하고 시설도 좋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적다고 했다.

대대는 태권도 수업을 매주 목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다. 교관 교육을 받은 카투사들이 보통 교관을 하는데 보통 한 포대당 2-4명 정도가 있다. 대대 전원이 최소한 노란 띠 이상은 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교관 카투사들은 1주일에 2번씩 도장을 다니며 1년에 2번 정도 검은 띠를 딸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작년 카투사 인식주간 때는 2정부시에 있는 장암 사회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멘터링, 즉 아동과 1:1결연을 맺어 가르치고 돌봐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포병여단차원에서 의정부시내 고아원을 돕기 위해 여러가지 행사와 모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6/37 포병대대는 봉사활동이 활발한데, 경기도의 병창 상사는 굉장히 활동적이며 일과 후 소대별로 돌



카투사 신문 강병삼

ON 'THE MINUTE,



카투사 신문 강병삼



제공사진

아가면서 간담회를 가지고, 카투사 편으로 인사과에 카투사들이 읽고 대어해갈 수 있는 책들을 구비해 놓기도 하는 등 카투사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본인이 대대차원에서 미군 간부들과 자주 대화를 하여 미군들과의 관계도 그 전보다 좋아졌다고 한다.

6/37대대는 1년에 7-8회정도 훈련을 위해 캠프를 나서는데, 가장 주된 훈련은 로켓을 직접 발사하는 실

사격훈련이다. 4박 5일 정도 진행된다고 한다. 훈련 나가기 전과 갔다 와서 정리하는 시간은 대대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다.

훈련이 없는 경우 월요일은 PMCS(장비 유지, 보수), 화요일은 청소, 수요일은 정훈, 영어교육, 목요일은 Sergeant's Time과 Soldier's Time(다용도로 활용되는 시간이라고 한다), 금요일은 모터풀 정리를 하다 보면 6/37대대의 1주일이 지나간다. 일주일에 한번은 미군 장교가 대대 전체를 상대로 1시간동안 영어 수업을 하고, 이외에 포대별, 소대별로 나눠 자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C포대에서 보급을 맡고 있는 오동교 상병은 검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포대장으로부터 코인을 받기도 하는 등 말은 일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른 부대에 가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이 부대에서의 군생활이 좋고 건강히 제대하는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에 총 7년 가량 있었다는 B포대의 Clifford G. Pass 중사는 "과거에 비해 현재의 카투사들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더 즐겁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군들과의 관계 역시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카투사들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에 대해 배우길 원하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들은 또 군기가 들어

있고 상관을 존중합니다. 우리 부대 카투사들의 경우는 미군들과 매우 가까워 때로는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데려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투사와 미군 사이에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으나, 카투사들은 영어를 놀랄 만큼 쉽고 빨리 배우고 배우려는 의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3주 전 6/37대대로 전입온 C포대의 길광일 이병은 "아직은 부대에 대해 잘 모르고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을 배울 것이며 선임병, 미군 등 모든 대대원들과 잘 지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본부포대의 강석우 상병은 자신이 속한 6/37포병대대에 대해 "가족같은 분위기이고 모임을 자주 가져 단합이 잘된다"고 평가하며 "실사격훈련에서 로켓포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화력이 강한 무기가 부대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포병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비록 포사격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6/37대대 모터풀에 꽂 차있는 거대한 로켓발사차량들은 그 위력을 짐작케 하였다. 모든 것이 기계화된 장비들을 보면서 인상깊었고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일찍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을 느꼈다. 한국군에도 6/37대대에 있는 것과 같은 MLRS가 몇년 전부터 도입, 배치되었고, 그 외에 많은 최신세의 무기들이 국내에서 개발 혹은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미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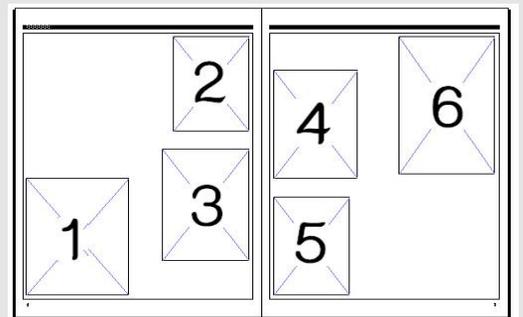
DEEP STRI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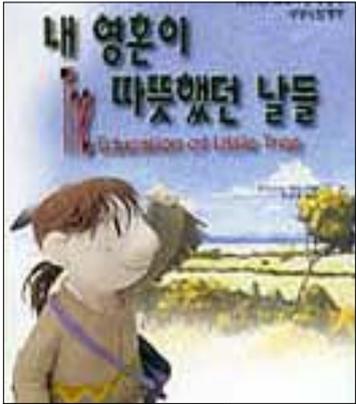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강병삼

군기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카투사들이지만 60만 선진국군의 일원이며, 그중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 ■

상병 강병삼



1. MLRS의 실사격 장면
2. A포대 이성취 상병이 M577의 연료를 확인하고 있다.
3. MLRS와 탄약을 분리, 점검하는 본부포대의 김규오 일병.
4. A포대의 하병수 상병(가운데 위)과 포대원들이 훈련 후 M577을 정리하고 있다.
5. C포대 길광일 이병이 POL 트럭의 고장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
6. C포대의 이호 상병이 MLRS에 위장막을 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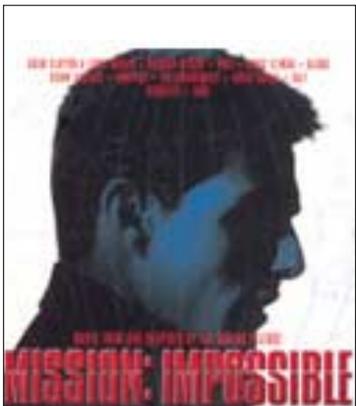


BESTSELLER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터 카터 / 아람드리

인디언의 세계를 어린 소년의 순수한 감각으로 묘사한 작품.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출지에 부모를 잃은 작은 나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산 속에서 함께 지낸 날들을 써내려갔다. 때문지 않은 소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읽어낸 예쁜 설이다. 자연과 교감 단절된 현대인의 무지를 일깨웠으며, 전미 서점상 연합회가 선정한 제 1회 예비수상작!



WEBSITE

CiNEMUSiC

ost.new21.net

이안과 떠나는 영화음악여행. 최신 영화음악, 추억의 명화 음악, 드라마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광고에서 들었던 짝막한 노래, '바로 이 음악이었구나!' 하는 광고음악도 있다. 잊혀진 음악들이 있는 음악의 보물창고 같은 음악사이트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들을 음악이 없다면 꼭 한 번 들려볼 만한 곳이다. 영화음악 작곡가와 스틸사진,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사이트!

■ 카 투 사 기 고 문

전역 / 등산 소감문

이현규 일병의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는 이번 호에 쉽니다. 그간 보내주신 기고문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카투사 독자분들이 기고하신 전역 소감문과 야외정훈 소감문으로 6면을 채웁니다. 오른쪽 글은 8헌병여단 본부중대 CID 소속의 김재현 병장이 26개월간의 군생활을 마치며 후배 카투사들에게 전하는 전역 소감문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하여 남모름 고생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멋지게 군생활을 마친 선배 카투사의 소감문이니 만큼 이 글을 통해 후배 카투사들이 군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글들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501정보여단 3정보대대 부대원들이 야외정훈시간에 영인산을 다녀와 쓴 등산 소감문입니다. 실내에서 강의를 듣는 일반적인 정훈에서 잠시 벗어나 부대 밖으로 나와 자연과 함께 한 동료 카투사들의 글을 통해 우리 역시 간접적으로 야외정훈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1년 1월 15일 부모님과 아내와 함께 논산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입대 한달전에 결혼을 하고 입대를 해야만 했었던 나의 마음은 무척이나 착잡하고 침울하였다. 또한 남들보다 많이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그리고 특히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 뿐이었다. 처음 논산 훈련소의 하루하루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훈련과정을 하나하나 소화해 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후회가 되었고 반성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조국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여 나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훈련소를 마치고 카투사로써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쯤 난 이미 또 다른 나로 새로 태어나 있었다. 나 하나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미뤄 왔던 국방의 의무의 당위성과 소중함이 나의 가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병, 일병, 상병을 거쳐 병장이 되어 전역을 며칠 안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나는 누구보다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군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으로서 또 UNIT의 일원으로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카투사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솔직히 처음엔 2년이라는 세월이 언제나 지나가려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루하루의 생활은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며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있었다. 더군다나 미군들과 함께 근무하고 생활하면서 나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군대라는 조직생활을 통해 내 자신을 더욱더 야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마음은 무척 아쉽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카투사로서 부대에 조금 더 남고 싶은 마음도 있다. 우물만 개구리였던 나에게 더 넓은 세계와 더 큰 신념을 가르쳐 준 26개월의 군 생활이 있기에 나의 미래는 더욱더 활기차고 멋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8헌병여단 본부중대 병장 김재현

정훈 시간에 비디오를 보고 지원대장의 이야기를 듣는것도 유익했지만, 이렇게 카투사들이 밖으로 나가 단합도 기르고 체력도 증진시키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예전에 한번 와 봤던 곳이라 쉬울거라 예상했지만,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그런지 정상에 도달하니 더 개운하고 오른 보람이 생겼다. 카투사들끼리 사진을 찍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날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나중에 제대해서도 좋은 추억거리로 남을 것 같다.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서 먹은 점심은 맛있었고 다들 자기가 먹은 음식 쓰레기를 싸고 내려가 버리는 모습은 역시 카투사들은 다르다라는 뿌듯함이 들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원대장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또 생겨 카투사들끼리 단합하고 유익한 공부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501정보여단 3정보대대 상병 허정

2003년 4월 9일. 그리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등산하기에는 우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날씨였다. 정훈 교육이라 하면 의래 앉아서 수업을 듣는 정적인 것이라 여겨져왔지만, 오늘의 정훈은 그 동안의 틀을 깨는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조금은 쌀쌀하기도 했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약간은 힘겨운 산행이었지만 정상에 올라 아산만과 삼교천, 서해대교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느껴지는 시원함은 모든 피로를 씻어주기 충분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버스의 좌석수가 모자라 많은 수의 병들이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타야했던 것과, 사전에 미군들에게 홍보가 되었었다면 크게는 한미우호증진에 그리고 작게는 함께 일하는 미군들과 좀 더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기회가 또 찾아오길 바란다.

501정보여단 3정보대대 병장 박정우

우선, 매우 시원하고 상쾌하였다는 말로 영인산에 다녀온 느낌을 표현하면서 감상문을 시작하고 싶다. 사실 겨우내의 움크려진 몸이 봄을 맞아 녹아내리는 것처럼 무언가를 새로운 다짐과 함께 해보려는 의욕이 마구 샘솟고 있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군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온몸이 젖도록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인산에 오르며 많은 것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수직과 같은 산을 힘들게 한 발 한 발 떼면서는 이 한 발 내딛는 것도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에는 조국의 넓고 아름다운 국토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봄소풍을 떠나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땀을 흘리며 몸 속에 묵어 있는 내태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유익한 정신훈련시간이었다.

501정보여단 3정보대대 일병 하주완

Winglish.Com 오ú çÔ²²çĭ´Â

English Talk N' Talk

Á| 12ãã

*당신 집에 대해 말해봐요.

이사간 친구 또는 일반 대화 시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아님 '집 소개 또는 자랑' 이죠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합니다.

Topic: "당신 집에대해 이야기좀 해봐" 또는 "지금 사는집 어때?"

Tell me about your house.

A: I've heard you moved to a new house, right?

B: Yes, I bought it.

A: Tell me about it.

B: It has three bed rooms, a double carport and large patios.

번역)

A: 새집으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B: 네, 집을 샀어요.

A: 집 얘기 좀 해봐요.

B: 침실이 세 개이고요,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가 있고요, 안뜰도 넓어요.

덧붙여)

먼저 a new house를 봅시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새로 지은 집'도 될 수 있고 또는 '(집은 현집이나) 새로 이사간 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 대화에선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미국엔 새로 만든 집보다는 'for sale'로 구입하는 남의 집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patio란 대문에서 현관문까지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로는 '앞뜰' 정도가 자연스럽지요.

*아이들은 안 되요.

종종 미국의 집 임대 광고지를 보면 No pets allowed. 또는 No children allowe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완동물 금지'와 '아이들은 안됨'입니다. 오늘은 그런 대화 연습을 합니다.

Topic: "아이들은 안 되요."(아이가 있으며 집을 임대 해줄 수 없습니다.)

No children allowed!

주제연구) 아이들이 집을 영망으로 만들까 봐 두려워 종종 집 주인이 No children allowed! 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인종차별로 악명 높았던 1970년

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식당 또는 공공 건물에 No blacks allowed!(흑인 출입금지)라는 뜻말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A: We're looking for a one-room apartment.

B: Do you have any children?

A: Yes, we have one.

B: Sorry, children are not allowed.

번역)

A: 방이 하나 있는 아파트를 구합니다.

B: 아이들이 있나요?

A: 하나 있습니다.

B: 미안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안되요.

덧붙여) 종종 one-room apartment 와 studio type apartment 가 혼동됩니다. one-room apartment 는 말 그대로 거실이 있고 침실이 따로 있는 방이 하나 있는 형태이고 studio apartment 는 우리 식 원룸 즉, 거실도 없고 방만 하나 있는 그런 형태지요. two-bedroom apartment 는 아이들이 있어도 임대 가능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one-room apartment 를 구하기는 쉽지 않지요.

*개는 안되요.(애완동물이 있으면 임대 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어제 집주인이 내거는 조건 중 하나인 'NO CHILDREN ALLOWED!'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애완동물"에 관한 임대 조건을 연습합니다.

Topic: "개는 안 되요.(애완동물이 있으면 임대를 해 줄 수 없어요)

No dogs allowed!

주제연구) 애완동물이 있으면 집이 지저분해지고 특히 밤에 울부짖기라도 하면 주위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조건으로 NO PETS ALLOWED! 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pet 은 애완동물을 의미합니다.)

A: Good morning, do you have a room for rent?

B: Yes, I do. For how many of you?

A: Two. We just got married.

B: All right, but we don't allow dogs here.



Winglish.com

번역)

A: 안녕하세요. 임대하는 방있어요?

B: 네, 몇분 이 사용하실 건데요?

A: 둘입니다. 저희 신혼부부 이거든요.

B: 좋아요. 하지만 개는 기를 수 없어요.

덧붙여) Good morning 에 대한 연습입니다. 자연스런 개념은 해 뜰 무렵(dawn)부터 낮 12시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전 (새벽4시경) 이라도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땐 Good morning 할 수 있지요.

*쓰레기는 오전 6시까지 밖에 내 놓으세요.

전세계 어디나 대도시는 쓰레기 처리가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를 다뤄봅시다.

Topic : "쓰레기는 오전 6시까지 밖에 내 놓으세요"

You have to put out the trash by 6 a.m.

주제연구)

전치사 by 와 '시각'이 쓰이면 '정확히 그 시각까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예를 좀더 들어보면 by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까지'이고 by Tuesday morning 이라면 '화요일 아침까지'라고 해석됩니다. (특히, 오늘 대화는 어제 내용과 연결되어 이해하실 수 있지요.)

A: I'll take it.

B: Good, do you have any questions?

A: yes, what about the trash?

B: You have to put out it by 6 a.m. on Thursdays.

번역)

A: 그 집으로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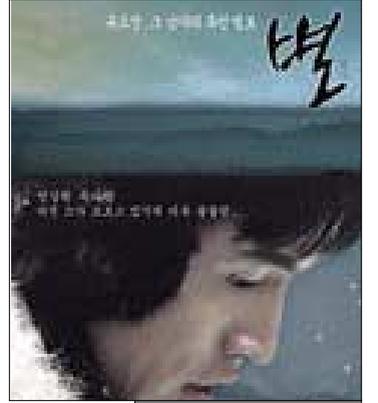
B: 잘 선택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A: 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하죠?

B: 매주 목요일 오전 6시까지 밖에 내 놓으셔야 합니다.

덧붙여)

전치사 on + 요일의 복수형은 '매주 그 날에'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on Mondays 이면 매주 월요일입니다.



MOVIE

별

감독: 장형익

주연: 유오성, 박진희

전화국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영우는 누구보다도 성실하며, 인정받는 사원이지만 고아로 살아온 탓에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강아지 알폰스를 돌봐주는 수의사 수연을 사랑하는 영우는 고백하지 못한 채 그녀의 주위를 맴돈다.



TOP CHARTS

김형중

그랬나봐

2. Desperado/ 포지션
3. 꽃 / 이승환
4. Hit Song/ N.R.G
5. 처음 그 날처럼 / 박용하
6. 친구 / 안재욱
7. 와줘 / Seven
8. Break Away/ Big Mama
9. 피아노 / 조성모
10. DJ/ 박지윤
11. Mr. A-Jo/ As One
12. 청첩장/ 김건모
13. 난 알아요/서태지

멈추지 않는 그녀, '이사돈'

빈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소녀 빈은 스크린에 그 모습을 보이기가 무섭게 많은 TV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 특유의 발랄함과 생동감에서 나오는 매력은 스크린에서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고, 어린 나이에든 불구하고 그녀만의 캐릭터를 이루어냈다. 본 기자는 '무서운 신예' 빈을 인터뷰 하



카투사 신문 장승모

- 최근근황
'강호동의 천생연분'이라는 프로그램을 계기로 제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대도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 태국 촬영을 끝으로 그 프로그램은 끝을 냈어요. 지금은 '논스톱'이라는 시트콤에 합류를 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김정화 씨가 빠지고 제가 들어가게 된 거지요. 이제부터는 이 시트콤에만 집중할 생각이구요, 가끔 CF도 있으면 찍을 생각이예요. 현재 아이스크림 광고 CF 하나를 마친 상태랍니다.

- 노래 하는 것과 연기하는 것의 차이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각자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내자면 두 개를 다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앞에 있는 연기 쪽을 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영화도 찍고 싶지만 아직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 연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
저는 연극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트콤 연기를 하게 됐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하는데도 힘들었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 성격
저는 숨기는 걸 싫어하고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내숭이라는 단어는 저랑 정말 안 어울릴 정도지요. 음, 말괄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장난도 많고, 말쑥꾸러기예요. 또 저는 모든 일을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

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취미
특별한 취미라고 내세울 건 없어요. 저는 보통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즈음에는 스케줄이 없을 때는 웬만하면 집안에서 책을 본다던가 영화를 보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하고 있어요. 뜨개질도 가끔 하고 있고요.

- 연예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호동의 천생연분'을 찍을 때는 밤 9시에 촬영을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끝이나요. 밤을 꼬박 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해서 촬영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깜박 잠이 들거나 하기도 해요. 그래도 워낙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어요.

- 존경하는 연예인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심은하씨를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김희애씨도요. 외국 배우 중에서는 르네 켈워거를 존경하고요. 연기도 잘하고 멋있잖아요. 최근에 본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가 정말 멋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를 보면 정말 감정이입이 쉽게 돼요. 제가 마치 영화 속의 그 역할이 된 기분이 들 정도예요. 연기에 몰입해서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게 참 매력적이예요. 저도 연기를 하면서 제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찾아야겠지요.

- 어릴 적 꿈
원래 어릴 적에는 많은 꿈을 가지고 항상 바뀌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후레시 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꿈은 바로 지구방위대! (웃음)

- 앞으로의 계획
지금 하고 있는 연기를 기점으로 이제부터 기회가 닿는다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요. 물론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해야겠지요. 그리고 연기를 계속 하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는 영화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 군대 가는 이들
에게 하고 싶은 말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넘어야 할 고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비를 넘고 나면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게 되잖아요. 따라서 한국 남자로써 항상 자긍심을 잃지 마시고 매사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시더라도 말이에요.

- 신인 연기자로서의 각오 한마디
상투적인 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이 제 각오랍니다.

- 어떤 연예인으로 남고 싶은지
저는 항상 같은 모습만 보여드리기는 싫어요. 굉장히 새롭고 질리지 않는, 항상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고 싶은 게 저 마음입니다.

- 이상형
저는 다정한 남자가 좋아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사소한 것까지 세세히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이 좋아요. 저를 위해서 항상 배려해주고 힘들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군인이 멋있을 때
제복을 갖추어 입고 정자세로 있을 때, 그런 군인분들을 보면 '아, 진짜 멋있다! 남자답다!'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 카투사에게 한마디
카투사 분들은 다들 굉장히 멋있는 분들 같아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만 될 수 있잖아요.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에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카투사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각자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건강에 유의하세요!

일병 장승모

기 위해 그녀가 출연 중인 MBC 시트콤 '논스톱' 녹화가 한창인 방송국을 찾았다.

-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먼저 본명은 전해빈이고요, 1983년 9월 27일 생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현재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에요.

- '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계기
제가 맨 처음에 'LUV'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어요. 활동을 시작하면서 '헤빈'이라는 이름보다 '빈'이라는 이름이 외자니까 더 기억하기 쉽다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빈이라는 이름이 이제 훨씬 익숙해진 것 같아요.

- 데뷔하게 된 계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데뷔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춤을 추는 저를 보시고 기획사에서 저를 캐스팅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해서 현재 제가 소속된 기획사에 스카우트 된 거지요.

의 차이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각자 노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을 내자면 두 개를 다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앞에 있는 연기 쪽을 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된다면 영화도 찍고 싶지만 아직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 연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
저는 연극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트콤 연기를 하게 됐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하는데도 힘들었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 성격
저는 숨기는 걸 싫어하고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성격이에요. 내숭이라는 단어는 저랑 정말 안 어울릴 정도지요. 음, 말괄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장난도 많고, 말쑥꾸러기예요. 또 저는 모든 일을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

프로필
본명: 전해빈
생일: 1983년 9월 27일
키: 165cm
몸무게: 43kg
학교: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

카투사 신문 장승모